

국민의

권리를

살피겠습니다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국민권익

AUTUMN 2019 Vol.62

ACRC NEWS LETTER 2019. Vol.62

AUTUMN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국민권익



국민 — 결

국민의 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살피며
더 나은 청렴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권리』



국민의 권리 앞에
부당한 일은 없는지
언제 어디서나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지켜낸 권리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올곧은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늘 세심하게 관찰하며
국민 곁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CONTENTS



- 04 권익 포커스 ①**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 08 권익 포커스 ②**
모바일상품권, 국민의 의견으로 바꾼다



- 15 권익 르포**
국민의 권리를 살피겠습니다
- 16 보다**
부패·공익신고 대상
- 18 듣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소개 및 사례
- 22 알리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 40 국민 생각함**
이달의 주제, 인사청탁·채용비리 문제 해소방안
- 42 그곳을 걷다**
비에의 섬, 소록도
- 48 권익 아카이브**
부패된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바꾸는 드라마



- 12 권익 빅데이터**
7월 민원동향분석



- 25 ACRC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 28 권익, 지금**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
- 32 청백리포터가 간다**
유튜브 방송 채널 <권익비전> 개국
- 36 청렴 TOON**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 50 권익 트렌드&이슈**
지구를 건강하게, 소비는 똑똑하게
- 52 권익의식주**
생활의 팁 - 등산 필수 애플리케이션
- 54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WRITE
편집실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한 곳으로 모아졌다.
지난 7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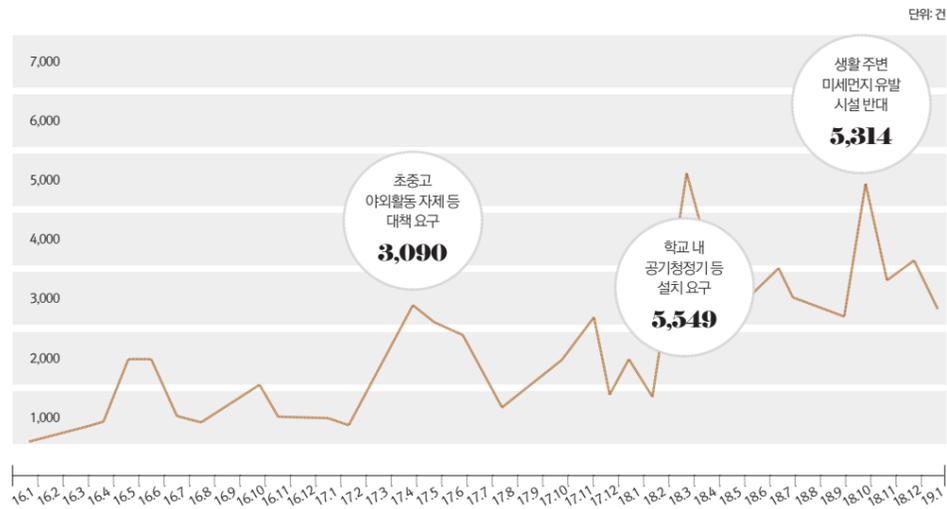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특별관에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들은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리며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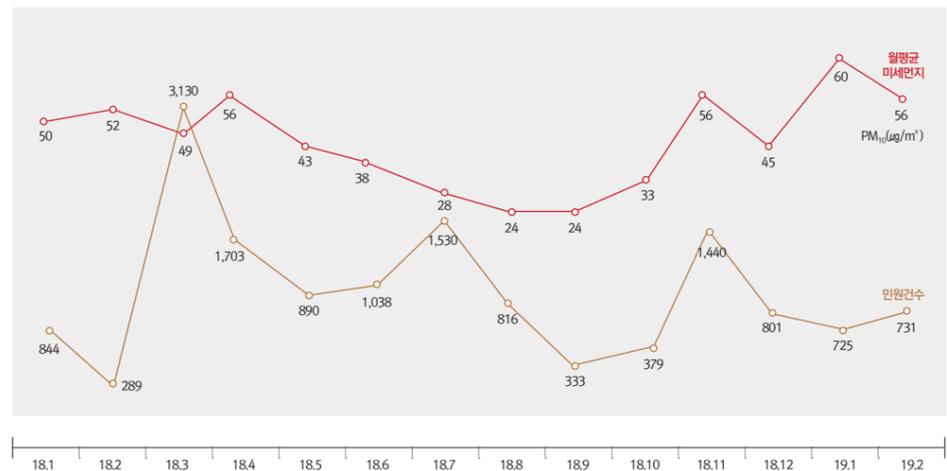
미세먼지 관련 민원 추이



미세먼지 관련 민원발생현황

분석대상: 최근 1년 2개월('18.1.1.~'19.2.28.)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중 직접적인 대책 등을 요구한 14,649건

미세먼지 수치 출처: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14,649 건

민원 14,649건
분석결과 분야별 현황
(2018.1.1.~2019.2.28.)

- 미세먼지 저감 요청 ↑ 5,603건
- 미세먼지 피해예방 지원 ↑ 3,579건
- 교육현장 대책 ↑ 3,091건
- 생활갈등 ↑ 1,972건
- 차량·선박 등 단속 ↑ 404건

적극적 외교노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기폐차 지원 등 친환경차 지원, 취약계층 지원, 옥외근로제한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야외활동 자제, 대응요령 숙지 등 비산먼지, 불법소각, 배기연통, 화목보일러 등 관련 갈등해소 센터카 등 자동차검사, 오토바이 운행제한, 선박단속 등

미세먼지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①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강화
- ② 공기정화설비 지속 관리
- ③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야외근로 제한
- ④ 조기폐차 지원차량 보험·검사 과태료 면제
- 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강화
- ⑥ 화목보일러 관리방안 마련
- ⑦ 대기관리권역 확대
- ⑧ 배출기준 초과하면 공익신고 가능
- ⑨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 ⑩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유도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경로당, 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에게 경보단계별로 마스크 지급, 근무 단축, 휴무 등 미세먼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증빙되면 책임보험·정기검사를 면제하겠습니다.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연료사용·관리 등 화목보일러 사용지침을 마련, 교육·홍보하고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을 추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선박, 사업장 등의 배출기준 초과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여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 6천명의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효기간을 늘려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되게 해주세요!

잔액 반환도 가능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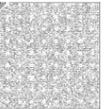
사용처가 더 다양하면 좋겠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된다고요?

환불 규정이 너무 복잡해요 ㅠㅠ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문했다고 추가요금을 달래요;'

해당 상품 재고가 없고 환불도 안된대요ㅠ



구매·선물부터
사용까지
편리하게

모바일상품권, 국민의 의견으로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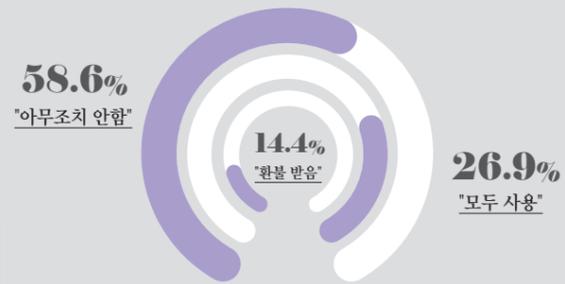
8.21. 모바일상품권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 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 잔액 반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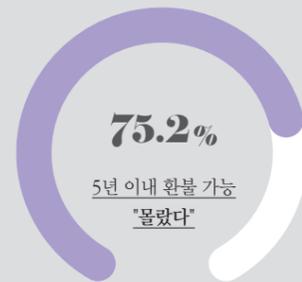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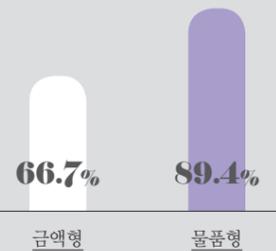
유효기간 경과한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



유효기간 연장 필요



2차에 걸친
모바일상품권 제도개선
공동 설문조사 결과,
총 26,162명의
국민이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Mobile Gift certificate

모바일상품권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26,162명 의견 수렴

<p>유효기간 확대 제각각인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p>	<p>미사용시 90% 환불 고지 통지시점을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미사용 잔액의 90% 환불 고지</p>
<p>프로모션·이벤트 상품권 유상 구입했다면 환불·유효기간 연장 가능</p>	<p>영화 예매권 표준약관 적용대상으로 영화예매권 환불·연장 가능</p>
<p>추가대금 요구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분쟁해결기준 마련</p>	<p>상품제공 불가능 100% 환불 상품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액 반환 상품권에 명시</p>
<p>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에 명시</p>	<p>편법 판매 금지 기준제시 금액형과 물품형 상품권 구별 기준 명확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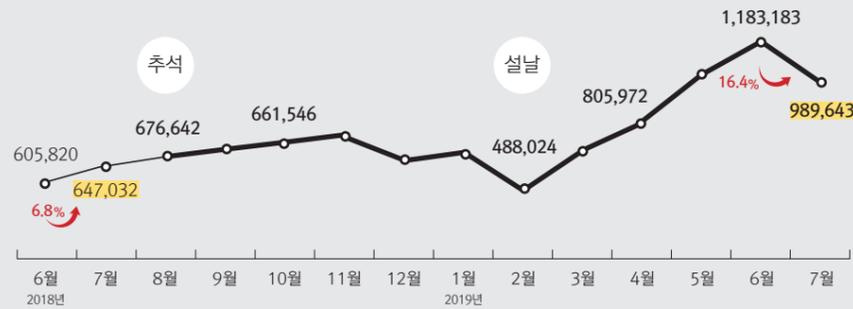
WRITE
편집실

민원 추이

+ 7월 발생량은 총 989,643건으로 전월 대비 16.4% 감소
+ 전년도 동기('18년 7월) 증가율(6.8%) 보다 23.2% 낮은 수준

2018년 월평균
591,872건

2019년 월평균
839,584건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7.1%)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57.7%)이 많음
+ 신청지는 경기(36.8%), 서울(33.8%), 인천(6.8%), 부산(4.1%) 순



기관유형별 현황

+ 전월 대비 시도교육청(79.5%)과 중앙행정기관(8.1%)은 증가
+ 지방자치단체(Δ22.9%)와 공공기관 등(Δ11.4%)은 감소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7월 민원동향분석

민원 빅데이터는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각종 연구와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 동향분석을 통해 지난날을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한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린 '7월 민원동향분석'을 이곳에 담았다.

주요정책별 동향



주택·교통 분야의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일자리 분야의 '비정규직 등 처우 개선', 저출산 분야의 '보육 지원' 3개 과제 관련 민원이 6월 대비 증가했다.

+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옹벽 시공방식 변경 요청(627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437건),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 보증금 등 관계법령 문의 증가

[자세히 보기]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단순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국토부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내용) LH는 분양안내서 기준으로 시공했으니 문제가 없다면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있는데 석재 마감 등 방식 변경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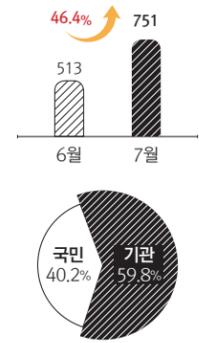
+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학교 공무직 신규 채용 이견 및 임금 협상 반대(1,468건), 아동그룹홈 종사자 등 처우 개선 관련,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기간제 근로자 휴가 관련 규정 등 질의 증가

[자세히 보기] 급식조리원 등의 학교 공무직은 이미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교사·행정직을 보조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무원·공사생과의 역할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들의 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말기를 바람

+ 보육 지원 서울 인공지능(AI) 어린이 안전플랫폼 사업 반대(170건), 아동수당·보육료 현실화, 신도시 유치원 증설 요구 등 보육 인프라 확충 관련 민원 다수

[자세히 보기] 인공지능 CCTV 설치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속고자 필요하며 보육교사 인권침해,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해당 사업의 즉각 중지를 요구함 ※ 서울시의 사업 공모(7월)에 응모한 금천구가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사업 중단

국민생각함 동향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에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7월 안전등록 현황 7월 등록안건은 751건으로 전월 대비 46.4% 증가(513→751건)

- 전년 동기 대비 92.6%(361건) 증가
- 발제자별로는 기관이 발제한 안건이 59.8%(449건), 국민이 발제한 안건이 40.2%(302건)

주요 국민발제 안건

우체국 등기우편물 수령 시 본인확인 방법 확대

발제자 김00 * '19.7.4 발제

내용(문제점) -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수령
- 신분증 미지참 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방안 지문인식기 설치를 통한 본인확인 및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본인인증 등의 본인확인 방식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지문인식기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각종 증면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 필요

발제자 한00 * '19.7.16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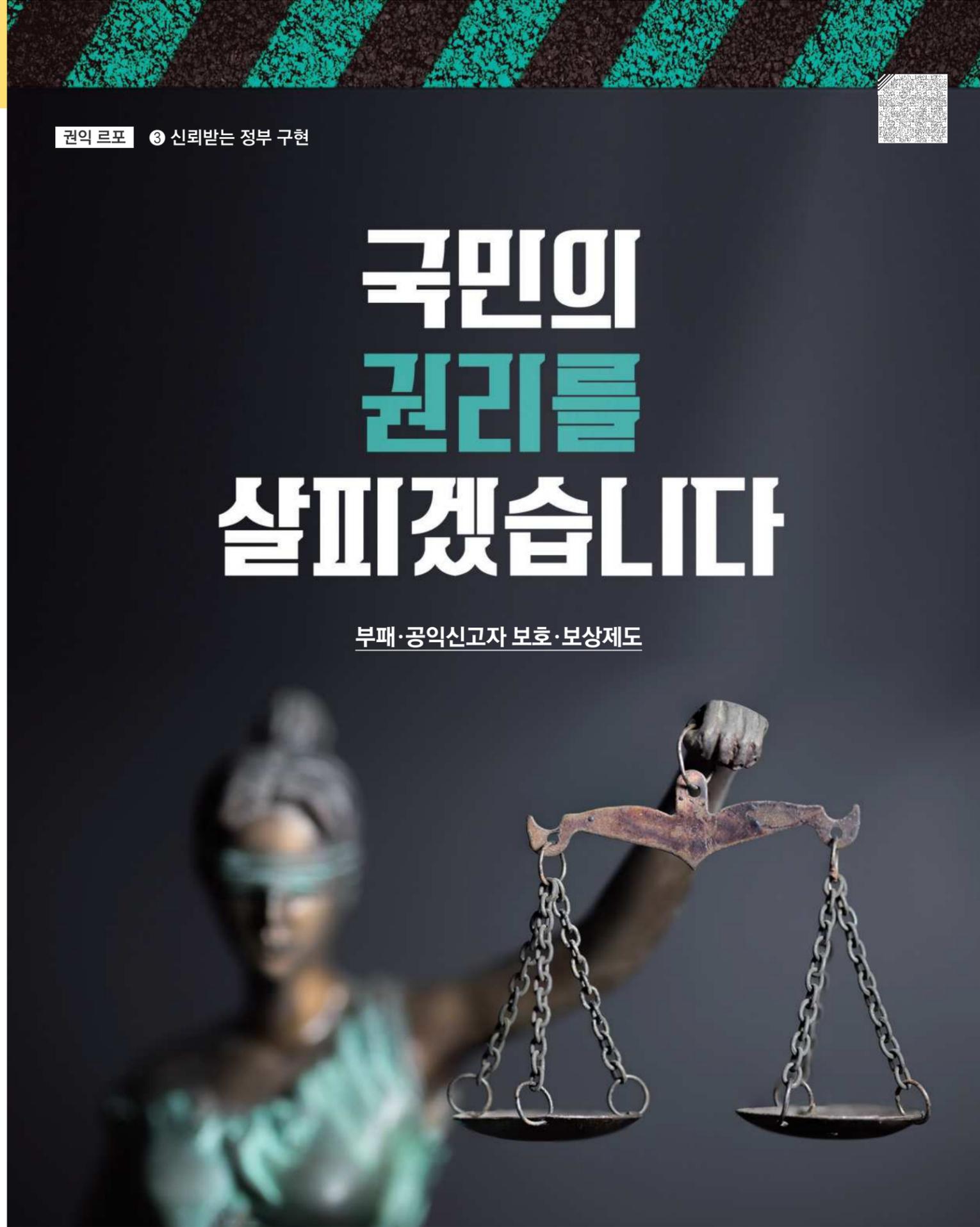
내용(문제점)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설치의 강제성이 없으며, 음향을 통한 보행신호의 상태만을 안내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의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음향신호기 의무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남은 시간 안내 등 횡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GPS활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 위치하고 있을 때 자동으로 알림기능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필요

권의 르포 ③ 신뢰받는 정부 구현

국민의 권리를 살피겠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국민의 용기 있는 부패·공익신고로 사회악이 근절되고 대한민국 곳곳에 부패의 고리가 끊어진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신고자가 체감하는 보호·보상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TEP
01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대상

반부패 개혁은 '신뢰받는 정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 화두다. 그리고 그 중심엔 부패·공익신고가 있다.
국민의 용기있는 참여인 부패·공익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곳곳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뿌리 뽑는다.

부패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STEP
02

모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소개 및 사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고내용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보상의 경우, 신고대상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위반 시 형사처벌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요청

책임감면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
내부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지급

포상금

신고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추천·심사를 통해 지급

구조금

신고로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지급
※ 부패신고는 '19.10.17. 이후 신고부터 적용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사례 ①

공익신고 분야 역대 최고

방산물자 원가 부정행위 신고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3,000만 받아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을 받았다.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2018년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사례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 원 ▲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 원 ▲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7. 9.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사례 ②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1억 7,643만 원 지급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5억 1천여만 원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 7,64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설비 및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741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1억 5,299만 원이 환수 결정됐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30만 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0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19. 8. 7.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한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신고를 주저했던 이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기능

-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봉인하여 보관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내부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지역을 고려해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게시
- 상담 등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주요 개정 내용('19.10.17. 시행)

구분	개정 내용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금지, 위반자 처벌(제62조제2항, 제90조제2항) + 기한 내 조치결정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매년 2회, 이행시까지) 부과(제62조의6)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신설(제63조의2) + 보호받는 신고자 범위를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제65조, 제67조) + 불이익조치 위반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미이행자, 신고자 보호조치 사실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및 형량 상향(제90조, 제91조)
신고자 보상·포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지급 범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한 건으로 확대(제68조제1항) + 신고자·협조자 등에게 구조금 지급 제도 도입(제68조제3항) + 보상금 신청기한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만 확정일부서 5년 경과시 지급 불가(제68조제5항)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일상고발)

신고접수

- 인터넷 : www.acrc.go.kr
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신고서 기재사항

- ①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②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하는 자
- ③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
- ④ 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의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ACRC NEWS

2019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 이야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을 7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공직자는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행동강령과 044-200-7672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신의학적 치료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7월 10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패신고자에게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학회의 도움을 받아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소송 등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법상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자가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협약으로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언론인 대상으로 첫 교육

수습기자 교육과정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습기자 교육과정에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언론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신고자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고자 신분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신분 유출 사례와 이에 따른 제재 등을 소개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심사기획과 044-200-7694



미군병원 보유 국군 의료자료 찾아와야

국군 의무기록물 확보 대책 국방부에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 우리 군은 6.25 또는 베트남 전쟁 등 미군과 함께 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미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곤 하였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이러한 의무기록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국가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국가유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국가기록관에서 해당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요구해야 하는데, 각종 서류에 대한 번역과 공증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견표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기회에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의무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i 자세히 알아보기
국방보훈민원과 044-200-7363

호당마을 주민 고충민원 해결

사고 발생 우려 교각 위치 이전 합의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5일 경북 영천시 호당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에 건설되는 철도 교각이 차량·농기계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중재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야 확보를 위해 철도 교각을 진출입로 건너편 쪽으로 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영천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진출입로 개설·보강과 교각 이전에 따른 행정 협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교통도로민원과 044-200-7510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우승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2일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팀과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대회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이 최종 우승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민원 및 갑질 피해 상담 '국민톡 110'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9일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 110'을 통해 민원 및 갑질 피해 채팅상담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부터 국민톡 110 이동통신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별도로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하고 사용법이 다소 불편해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국민톡 110' 상담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정보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민원을 상담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110콜센터 02-2110-6502



※ 위 소식들의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의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WRITE 정리희
PHOTO 이덕재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onference)는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반부패 연대의 장이다.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년에 한 번씩 열린 국제반부패회의의 제19차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에 열리는 제19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회의! 그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다

+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

국제반부패회의는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전 세계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협력 및 정보 공유의 장이다. 한국은 2003년 제11차 회의를 법무부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반부패·청렴 가치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의 투명성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이번 제19차 회의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우리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기회다. 2020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1500명에서 2000명 내외.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은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는 대규모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회의 기획과 운영, 보안 및 의전,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왼쪽부터) 조혜림 주무관, 김미란 사무관, 황정은 사무관, 김영일 사무관, 강미영 사무관, 임한나 서기관, 정윤정 과장, 문소희 사무관, 부지연 주무관, 변규태 주무관, 한효정 통역사



+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기획단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F 조직으로 지난 7월에 개설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담당관실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내 몇몇 부서와 지자체에서 발탁된 지원 인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포럼인 만큼 대비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다양한 반부패 이슈를 논의하는 6~7개 전체 세션과 50개 내외의 워크숍이 나흘 동안 열리며, 그 사이 반부패 영화제와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한다.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기획단의 중심을 이룬 국제교류담당관실은 주로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 협력해서 일합니다. 그중에서도 반부패 이슈는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이행하자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UN 협약과 OECD 협약이 있지요. 이러한 협약을 이행하도록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 매년 다양한 회의들이 세계 각국에서 여러 차례 열립니다. 양자간 협력 측면에서 한국은 8개 반부패정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참고하러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원래 업무에 준비기획단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TF 구성원들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열의를 모으고 있다. 2000명 내외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처음 치르는 터라 긴장이 되기도 한다. 그럴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비기획단은 다른 부처의 대규모 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안마다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반부패 사례를 알리는 시간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기획단은 개최국 정부가 맡은 현지 회의 장소 섭외, 예산 지원, 국제 행사 전문 용역 업체 선정 등의 행사 총괄을 포함해 회의의 아젠다 및 초청 인사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국제 반부패 이슈와 더불어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반부패 경험과 성과를 조화롭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제19차 회의의 주제는 <Designing 2030 : Truth, Trust and Transparency>입니다. 한국은 반부패에서 벗어나 부패의 범위를 확장해보자는 차원에서 ‘청렴’이라는 키워드를 재설계했어요. 반부패는 ‘하지 말자’는 의미가 강한데, 청렴은 ‘지키자’는 긍정적인 행동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실제로 한국은 수준 높은 IT 기술

을 바탕으로 정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성공 사례가 많다.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점도 향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교류담당관실 정운정 과장은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왔던 반부패 정책 성과를 전 세계 반부패 관계자들과 공유하겠다.”고 전한다. 한국처럼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빈국에서 부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덕분에 한국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준비기획단은 한국이 반부패 측면에서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논의 주제를 꾸준히 개발하고, 전방위 홍보와 국제 마케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역대 IACC 개최국 및 회의주제

회차	개최국	회의주제
11차('03년)	대한민국	다른 문화, 공통의 가치
12차('06년)	과테말라	정의로운 세계를 향해
13차('08년)	그리스	글로벌 투명성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부패방지
14차('10년)	태국	신뢰회복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행동
15차('12년)	브라질	시민들의 단체행동 : 변화의 염원을 모아
16차('15년)	말레이시아	부패 불처벌 근절 : 국민, 청렴, 행동
17차('16년)	파나마	정의를 위한 시간 : 평등, 안보, 신뢰
18차('18년)	덴마크	발전, 평화, 안보를 위한 협력
19차('20년)	대한민국	청렴한 2030년을 향하여: 진실, 신뢰, 투명성

범정부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국민권익위원회 + 준비기획단 운영('19.7~)
 -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괄기획팀, 행사운영팀, 의전팀을 운영
 - 회의 기획 및 현장운영 총괄 담당
 + 국제행사전문용역업체 선정·감독('19.12~)

정부부처 협력 + 대테러센터 국가중요행사 지정('18.12)
 - 질서유지, 교통관리 등 지원
 + 범정부지원협의회('19.10.~)
 - 국조실,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서울시 등 관련부처
 - 의전·경호, 출입국지원, 국정홍보 등 협의

국내·국제 협력 + TI한국본부, 청렴사회인관협의회
 - 주제선정 및 홍보 자문
 + Agenda Shaper
 - 국제전문가 의제 개발 회의
 + IACC위원회
 - 회의주제 최종 승인
 + TI의 IACC팀
 - 회의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Mini Interview



임한나 서기관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소속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준비기획단에 지원 근무를 하러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에 출범한 이후 이렇게 큰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한 번에 2000명 내외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이기에 준비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반부패 경험과 성공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청렴 선도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부지연 주무관

준비기획단에서 TF를 조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8월부터 제주도청에서 파견을 나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포럼인 국제반부패회의의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WRITE

디지털소통팀 장성현 사무관

“앞으로도, 저희 디지털소통팀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권익비전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소통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방송 채널 <국민권익비전> 개국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은
9월 9일 개국한 <국민권익비전>을 통해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시대,
달라진 소통방식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의 탄생과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SNS 이용자는 현재 27억 7천만 명을 넘었고, 2021년에는 30억 명 가까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70% 이상이 SNS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SNS 앱 이용자 규모가 2018년 6,230만 명(중복가입)으로, 하루 평균 35.5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SNS는 정보의 공유와 여론의 흐름을 좌우하는 강력한 미디어로 떠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소통팀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39차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디지털소통 강화를 주문했고, 현재 31개 부처가 홍보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채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5월 작가, 영상 제작 PD, 그래픽디자이너를 채용했고, 6월부터 7명의 디지털소통팀을 구성해 다양한 정책홍보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담당자가 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정책을 설명해주는 <스피크 보도자료>, 주요 정책 실무자의 압박 인터뷰 <조사하면 다나와>, 눈에 띄는 위원회 현장 행정을 담은 <현장 행정 기획 영상>, KTV 국민방송과 협업해 적극 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해결각>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콘텐츠는 정책을 이미지로 알기 쉽게 전하는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초보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휴직 웹툰 <아빠맘> 등을 제작 중입니다. 또한 대형 포털과 제휴한 특별한 정책홍보 시스템 <네이버 법률 판>, 청렴 인문학<삼국지 인물 열전> 등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선수,
34명의 디지털소통 서포터즈 출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중에 끼와 재능을 겸비한 직원을 디지털 서포터즈로 선발하고 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국민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영상 장비 도입 및 촬영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게 해주었습니다. 9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방송 채널 <권익비전>의 개국 행사를 특집 생방송으로 제작·송출함으로써 디지털소통팀의 역할을 대내외에 알리고,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국 행사에는 박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직원들이 참석해 격려해 주었으며, 디지털소통팀의 향후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소통팀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국민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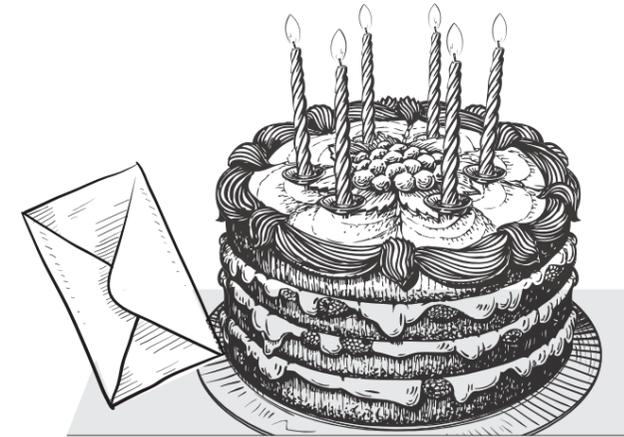
WRITE
일반부문 우수상. 김지아

일반부문 우수상 아버지와 생크림 케이크

세상의 온갖 부정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자신이 지켜온 올곧은 신념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었던 사람.
그가 지켜온 청렴함은 오늘의 자랑스러움이 되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생일날,
집으로 배달된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를
돌려보내야만 했던 청렴 이야기를 소개한다.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중학교 때,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놀랐던 일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럼 돈 많이 버시겠네.”라고 말했던 일이다.



우리 집은 유복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일하시는데도 자식들 단과학원 하나 보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직업이라니, 내가 왜냐고 묻자 친구는 “공무원이면 뒷돈 많이 받잖아.”라고 당연한 것을 모르냐는 듯 대답했다. 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와 생크림 케이크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생일에 생크림 케이크가 배달되었을 당시 나는 겨우 여섯 살이었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다. 배달원은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머뭇거리다가 일단 배달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케이크를 받아 식탁에 올려 놓았다. “안녕하세요.” 언니와 나는 배달원에게 환영인사인지 작별 인사인지 모를 말을 내뱉고는 식탁으로 달려가 케이크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손잡이 부분의 비닐을 통해 본 케이크는 황홀했다. 하얀색 크림이 디즈니 성의 지붕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빼곡히 윗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크림 지붕들 사이에는 꿀, 키위, 복숭아 등의 통조림 과일들이 설탕 옷을 입고 윤기를 뽐내고 있었다. 언니와 나는 침만 꼴깍 삼키며, 아버지가 얼른 돌아와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그날 꽤 늦으셨다. 언니와 나는 잠들 뻔한 것을 겨우 참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케이크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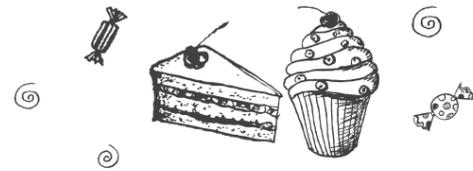
드디어 아버지가 케이크를 꺼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상자를 열어 케이크를 집어넣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도 대지 말고 뒤. 전화해서 내일 다시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나는 크게 실망했다. 199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 케이크는 꽤나 귀한 것이어서 내 생일날에도 유치원에서나 한 조각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허물며 생일 축하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아버지 생신이니 갑작스레 찾아온 그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나는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다. 내일 다시 가져가봤자 딱딱해져서 아무도 못 먹을 텐데. 버릴 바에야 우리가 먹는 게 나으는데. 그런 간단한 사실도 모르는 아빠가 참 야속했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케이크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독이 들었는지 몰라. 나는 케이크를 포기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았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케이크는 그쪽에서 보내온 함정으로 똑똑한 아버지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누구도 손대지 못 하도록 엄격하게 말한 것이리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들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라 케이크에 독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컸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던지시 그때 일을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그 케이크 밀바닥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가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케이크 밑에서 봉투를 발견하여 손도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의 허무맹랑한 상상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독은 케이크 속이 아니라 케이크 밀 봉투 속에 부정이라는 형태로 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 타입의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돈 버는 일에도, 집안을 살피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한량이었다고 했다. 할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시느라 학비는커녕 매일 수제비를 마음껏 먹을 형편조차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돈조차 없어 입시를 포기하고 독학으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지켰던 청렴함은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복보다,
새 교복을 입는 기쁨보다,
미술학원에 가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다.



“내가 첫 출근을 하던 날, 점심에 식당에서 고깃국이 나왔어.” 아버지는 공무원이 얼마나 멋진 직업인지를 설명할 때면 항상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 그 뒤로는 공무원은 해외로 출장도 갈 수 있어, 마음껏 교육도 받을 수 있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등등의 좋은 점들을 실컷 나열하고는 그러니 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공무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곤 했다.

꼭 고깃국이 아니었더라도 아버지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일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이야기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에 실린 힘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뒷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부정을 저지르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1990년대는 촌지라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될 정도로 뇌물을 받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된 공무원이었기에 괜한 부정으로 그 자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으리라.

사실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친구들이 방학 때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올 때, 맞지도 않는 언니의 큰 교복을 물려받아 입어야 했을 때, 비싼 학원비 때문에 미술을 포기해야 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양심을 포기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아버지가 지켰던 청렴함은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복보다, 새 교복을 입는 기쁨보다, 미술학원에 가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던 것 같다. 찰나의 즐거움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퇴색하지만 청렴한 아버지를 둔 것은 평생 안고 갈 자랑스러움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된 지금, 나도 가끔 부정의 유혹을 받는다. 회사 앞에 찾아온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고 미팅했다는 거짓말로 영수증을 청구하고 싶은, 어쩌다 늦게 일어났을 때 아프다는 거짓말로 변명을 대신하고 싶은, 쌓여있는 회사 비품들로 자취방의 생필품 찬장을 푹푹 채우고 싶은, 이런 사소하지만 부정이 분명한 유혹들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생크림 케이크를 떠올린다.

“손도 대지 마.”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나 또한 앞으로 부정의 유혹에 ‘손도 대지 않을’ 생각이다.



WRITE
편집실

생각에 생각이 더해질 때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린다.
이번에는 ‘인사청탁·채용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국민을 위한 생각함

이달의 주제, <인사청탁·채용비리 문제 해소방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리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가 연루된 인사청탁·채용비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idea.epeople.go.kr ☎ 1600-8172

국민의 소리

계속해서 발생하는 인사청탁·채용비리 문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력한 처벌이 효과가 있을까? 처벌 외에 다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청탁한 자에게는 큰 벌금과 채용 취소 및 채용을 요청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채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청탁을 받은 인사권자는 해임 등의 엄격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오선*

박무*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자는 읍입니다. 사회지도층이 갑이지요. 읍의 입장에 처한 게 개인 잘못은 아닌데 그들에 대한 처벌만 강화해서는 소용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지도층 자녀 취업을 별도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채용 이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양*

조미*

당사자들에게 탈락 사유, 면접 점수 등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공지한다면 비리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개채용과 채용 결과에 대해 공고를 하며, 특히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자제분들은 특별하게 모든 신상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채용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세*

김성*

제3의 정확한 감사 제도가 필요할 듯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어떤 청탁에도 구애받지 않는 조치와 법규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인사 청탁, 채용비리에 관한 웹 드라마를 만들어서 어떤 유형이 잘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



WRITE 김성호
PHOTO 최준근

4.42km² 크기의 비애의 섬, 소록도(小鹿島)에 1,160m 길이의 다리가 놓였다. 다리를 건너 발길 닿는 곳곳에 먹먹함과 경건함이 서린다. 불과 1백 년, 아니 30년 전의 일이다. 온전치 않은 육신의 시름에 슬픔을 엮었다는 생각은 대체 누가 한 것일까.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사슴의 섬, 단절의 섬, 그 섬을 찾아 작은 문장을 띄운다. 그곳에서 키워온 빛과 이야기를 담아서.

1,160m
4.42km²

★ 그리고

별



마음과 마음이 닿는 통로

본격적으로 소록도 문턱에 외인(外人)의 발길을 닿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소록대교가 놓인 후부터다. 녹동항에서 바라보는 소록도는 손에 잡힐 듯 가깝지만, 오랜 시간 섬을 짓눌러온 '격리', 두 글자의 공고한 낙인은 고립과 단절의 상징이 되어 외딴섬을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길이 1,160m의 소록대교는 단순히 인류가 집적한 산물로서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소록도가 품어온 비애와 절절함을 마주하고,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진 세월을 속죄하는 교두보이자 마음과 마음을 잇는 통로다.

소록도의 아픈 역사는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된다. 조선총독부는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 위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1916년 2월 24일에 소록도자혜의원을 설립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수용했다. 소록도는 육지와 가까이 물자 조달에 용이했고, 작은 규모의 섬이었기에 통제가 수월해 최적의 장소로 선택받았다. 그때부터 소록도는 세상에 닿지 않을 절규와 통곡의 슬한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

민낯의 바다 녹동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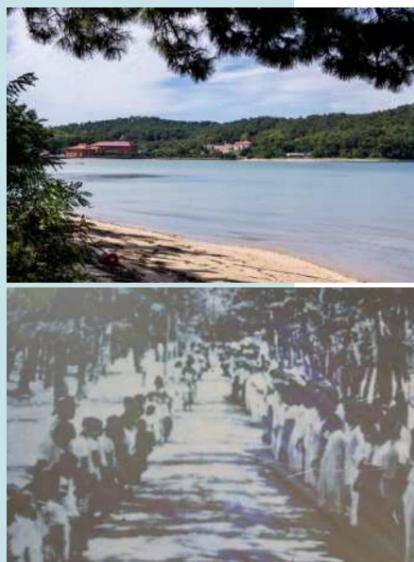
녹동항에 당도하자 어촌 특유의 색감과 소란스러움이 반갑다. 녹동항은 과거 소록도와 육지를 잇는 포구이자 어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젃줄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은 어선들은 분주하게 물고기를 끌어올렸고, 어둠을 가르며 어선의 작은 불빛은 별처럼 고흥 바다를 수놓았다. 만선을 꿈꾸는 어부의 흥얼거림과 그 뒤를 쫓는 갈매기의 날갯짓은 녹동항이 품은 가락이자 춤사위였다.

고흥의 본래 정서는 낮고 비옥한 삶의 땅, 자연의 지혜가 쌓이고 쌓여 축적된 어민과 농민의 원초적인 마을에 가까웠다. 10년 전, 고흥읍 나로도에 나로우주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고흥은 우주도시, 과학도시라는 옷을 입었다. 도처에 우주와 천문을 테마로 한 과학관과 전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전라도 끝자락에 자리한 고흥은 이례적으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마주하게 됐다. 녹동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수산시장을 현대식으로 보수하고, 바다 정원을 만들었다. 녹동항과 불과 1km 떨어진 소록도 역시 소록대교가 개통되며 단절의 역사에 소통의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개발과 지역 특화산업에도 불구하고 고흥과 녹동항의 새로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까닭은 소록도가 품어온 100년의 시름과 단절의 민낯 때문은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길

녹동항의 파란 바다를 가로지르는 소록대교를 지나자 곧바로 소록도 주차장과 역사문화탐방 안내소가 눈에 들어온다. 주차장을 기준으로 왼쪽은 국립소록도병원과 중앙공원, 오른쪽은 소록도 해수욕장이다. 이곳부터는 도보만 가능하다. 관람객의 발길이 허용되는 구간은 소록도 병원과 중앙공원까지다. 일제강점기 당시 소록도는 두 개의 번지수를 가졌다고 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일본인 직원이 거주했던 섬의 오른쪽 1번지와 환자들이 거주했던 섬의 왼쪽 2번지로 나눠 부르며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격리된 작은 섬 안에서 삶의 형식을 가르며 단절이 존재한 섬이다. 이 경계는 소록도의 슬픔에 불을 지른 곳이기도 했다. 해안을 따라 안내소에서 중앙공원까지 소나무 숲길이 이어져 있는데, 이곳은 수탄장(愁嘆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수탄장은 일본인 직원의 감시 아래 한센병 환자와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월 1회 면회가 허용되는 장소였다. 눈앞에 있는 아이를 품을 수도, 어루만질 수도 없었다. 길의 양 갈래로 나눠 서 그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그 당시의 표정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까닭에 절로 걸음이 느려지고 멍멍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길을 걷는 듯 했다.





모두 다 모두가 다

중앙공원을 나서면 붉은 벽돌로 지은 두 채의 건물이 보인다. 감금실과 검시실이다. 1935년 설립된 감금실과 검시실은 인권 탄압의 상징물이다. 오래된 두 채의 작은 건물 안에 한센병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대의 고난과 수모가 다 들어 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모두 일본에 의해 박탈됐으며, 일본인 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감금, 금식, 체벌 등의 징벌을 받아야 했다. 해부실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검시실은 사망한 환자의 검시를 위한 해부실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건물들은 소록도에 새겨진 갖가지 생채기와 함께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질문과 회한을 적나라하게 들이댄

다. 이어서 한센병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2층으로 구성된 한센병 박물관은 인권, 삶 등 6개의 상시전시실과 기획전시실, 특별전으로 구성돼 있다. 소록도 주민들의 유품 전시와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체험 공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박물관 내부에는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새겨놓은 글귀와 그들의 비애를 기리는 추모사가 곳곳에 각인돼 있다. 당시의 상흔을 위로하고 보듬는 문장들이다. 한센병 환자들은 매섭게 비바람 치던 그 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않았고, 우리는 이제야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문득 전시실 중앙에서 마주한 글귀가 오랜 시간 발걸음을 붙잡았다.

한센병은 낫는다

작은 섬 곳곳에 피로웠던 당시의 자화상과 질감이 서려있다. 고난에 찬 세월의 지층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근 백 년 간 소록도가 세상 밖으로 보내고자 했던 간절한 이야기를 이제야 마주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저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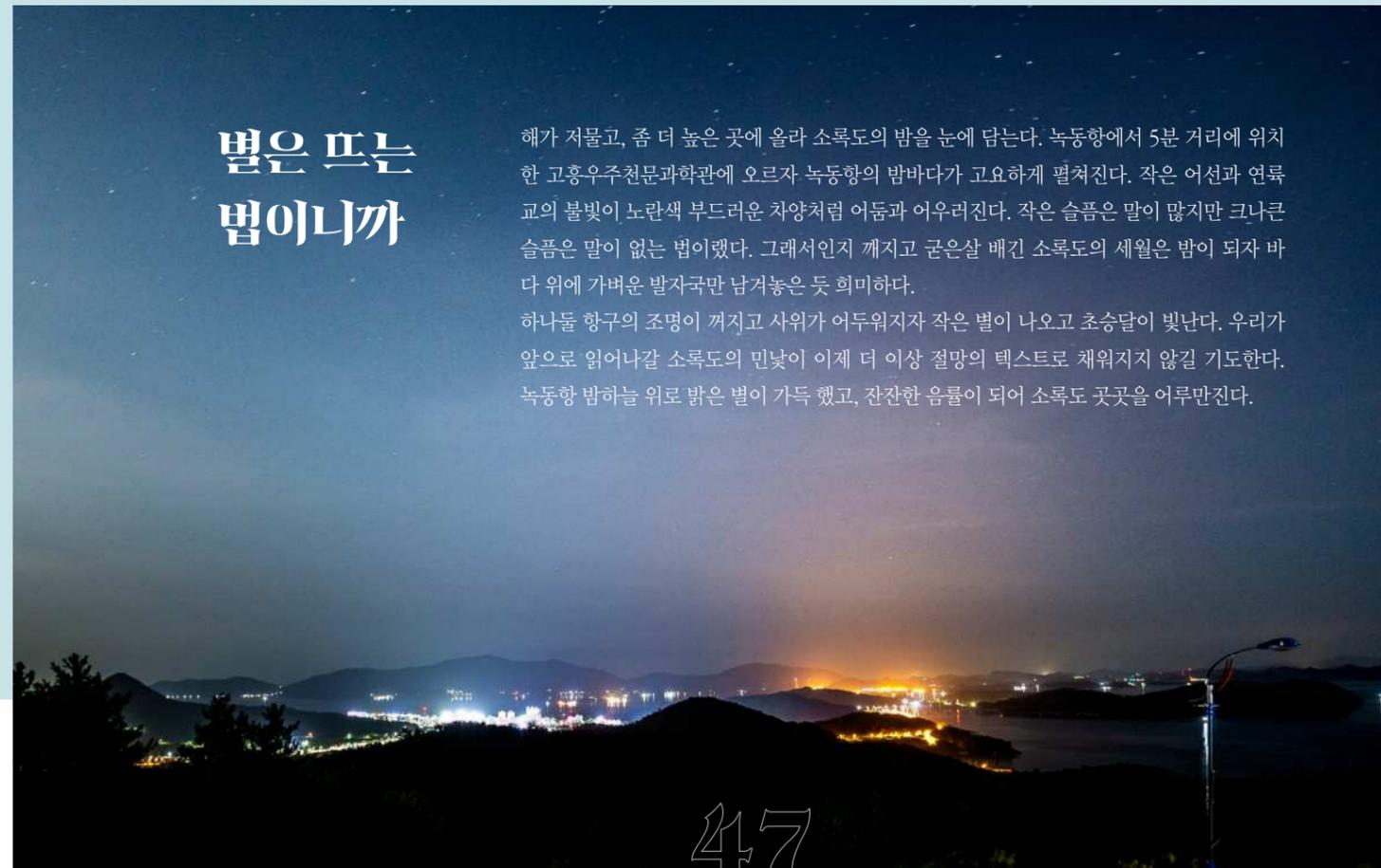
소나무 숲길을 지나 중앙공원에 들어서자 초록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종려나무, 능수, 차나무, 매화나무 등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목과 기암괴석이 그림같이 어우러져 수목원을 방불케한다. 당시 '부드러운 동산'이라 불린 중앙공원은 이름과는 다르게 6만여 명 환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1936년 착공해 3년 4개월 동안의 공사 기간 동안 환자들은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해안가에 실려 오는 각종 수목과 암석을 직접 날라야 했고, 밤낮없이 노동에 현장에 동원되어야 했다.

잘 가꿔진 수목 사이로 우뚝 솟은 흰 탑이 눈에 띈다. 구라탑(求羅塔)이라 불리는 이 탑은 말처럼 나병(지금의 한센병) 환자의 구원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기념탑이다. 미카엘 대천사가 한센균을 찢어 박멸하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하단에는 '한센병은 낫는다'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있다. 중앙공원을 뒤로하고 나오는 내내 '낫는다'라는 문장은 실 새 없이 귓가를 맴돈다.



별은 뜨는 밤이니까

해가 저물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 소록도의 밤을 눈에 담는다. 녹동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 오르자 녹동항의 밤바다가 고요하게 펼쳐진다. 작은 어선과 연륙교의 불빛이 노란색 부드러운 차양처럼 어둠과 어우러진다. 작은 슬픔은 말이 많지만 크나큰 슬픔은 말이 없는 밤이었다. 그래서인지 깨지고 굳은살 배긴 소록도의 세월은 밤이 되자 바다 위에 가벼운 발자국만 남겨놓은 듯 희미하다. 하나둘 항구의 조명이 꺼지고 사위가 어두워지자 작은 별이 나오고 초승달이 빛난다. 우리가 앞으로 잃어나갈 소록도의 민낯이 이제 더 이상 절망의 텍스트로 채워지지 않길 기도한다. 녹동항 밤하늘 위로 밝은 별이 가득 했고, 잔잔한 음률이 되어 소록도 곳곳을 어루만진다.



WRITE
편집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부조리를 고발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단 몇 부작만에 해결한다.
퍽퍽한 고구마를 먹게 하는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사이다를 들어켜보자.

부패 권력을 향한
통쾌한 한 방!



작지만 위대한 드라마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왓쳐」



부패를 목격한 경찰 도치광(한석규)과 살인을 목격한 순경 김영준(서강준)과 거짓을 목격한 변호사 한태주(김현주)는 비극적 사건으로 얽혀 비리수사팀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한다. '왓쳐'는 비극적 사건에 얽힌 세 남녀가 경찰의 부패를 파헤치는 비리수사팀이 되어 권력의 실체를 밝히는 내부 감찰 스릴러를 그린다. 경찰을 잡는 경찰, '감찰'이라는 특수한 수사관을 소재로 한 팀이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특수한 관계성이 돋보인다. 숨겨진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권력의 실체에 다가서는 비리수사팀을 통해 소위 정의를 지켜야 하는 이들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선과 악,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지금 당신의 일터는 안전합니까
「닥터탐정」



'닥터탐정'은 산업 현장의 사회 부조리를 통쾌하게 해결하는 사회고발 메디컬 수사극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박준우PD가 연출을 맡았다. 닥터탐정(박진희, 봉태규)의 활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아 목격당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카타르시스를 전하고자 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공장 노동자 집단 하반신 마비, 가슴기 살균제 참사 등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사회 이슈들을 다룬다. 사건은 현실감을 높이고 진실을 알리면서 시청자들의 감정 이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낮에는 속물, 밤엔 정의의 사도
「복면검사」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권력과 재력 앞에서는 힘이 약해지고 만다. '복면검사'는 합법의 가면 뒤에 숨은 악(惡)과 그를 비호하는 법에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코믹 드라마다. 하대철 검사(주상욱)는 돈과 힘에 밀려 정의를 잃어가는 세상에 맞서 낮과 밤을 다르게 살아간다. 밤이 되면 복면을 쓰고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죄인을 찾아가 그만의 방법으로 벌을 주는 히어로인 셈이다. 시청자들에게 가짜 정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복면검사는 사회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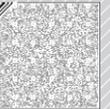
갑질없는 사회를 꿈꾼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6년 차 공무원 조진간(조장풍)은 왕년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유도 폭력 교사였지만 지금은 복지부동을 신념으로 하는 인물이다. 드라마에서는 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발령 난 뒤 갑질 악덕 사업주 응징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통쾌하게 그려낸다. 실제 '특별근로감독관'이란 직함은 없지만, 노동법 위반 사안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조장풍 역을 맡은 김동욱은 갑질 악덕 사업주를 향해 거침없이 멘트를 날리며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한다.

지구를 건강하게 소비하는 똑똑하게

바다 깊숙한 곳, 동물의 몸 속 등 쓰레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에코 바람이 불고 있다.
작은 실천으로 환경오염을 줄여나갈 수 있는 친환경 소비를 알아보자.



※ 출처 - 환경부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 종이 영수증은 발급비용만 약 2,500억 원에 이르고, 영수증의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소요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5만 5,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발급 즉시 버려지는 영수증이 약 60%에 달해 자원낭비와 폐기물 처리 등 환경비용 문제도 크다. 영수증 용지의 발색촉매제로 주로 사용되는 비스페놀 A(BPA)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 대형마트, 관공서 등에서는 휴대폰 앱을 통해 전송되는 모바일 영수증을 자동으로 받아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지금 당장 터치 몇 번만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플라스틱 빨대의 종말 바다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제거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빨대가 다양하게 출시됐다. 먼저, 다채로운 컬러나 패턴 등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뛰어난 종이빨대가 대표적이다. 스테인리스 빨대는 세척 솔을 이용해 간편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드럽고 유연하며 전자레인지나 물에 삶아 소독이 가능한 실리콘 빨대가 있다. 이외에도 알루미늄, 대나무, 옥수수전분, 사과, 쌀, 해초, 사탕수수로 만든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한다.



자연에서 출발해 다시 자연으로 비닐봉지와 종이가방 대용으로 쓰이던 것에서 출발한 에코백은 환경보호 활동의 하나였다가 이후 패션 아이템으로서 자리 잡았다. 에코백에 흔하게 사용되는 재료는 형광, 표백 등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천연 섬유이다. 천에 들어가는 프린팅도 천연 염색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되었을 때도 분해될 수 있는 재료만으로 가방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장바구니 역시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를 갖춰가고 있다. 최근에는 가볍고 얇은 소재이거나, 펼쳤을 때는 일반 비닐봉지보다 크지만 접으면 한 손에 들어오는 만큼 크기가 작아지는 포켓형이 인기다.

녹색매장에 방문해보세요



아름다운 가게

기증받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새 주인을 찾아주고 판매 수익으로 이웃을 돕는 비영리 재사용 나눔 매장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국내 최대 공정무역 쇼핑몰 의망 무역을 지지하는 NGO 단체와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 세운 사회적 기업

생협

소비자 중심의 생활협동조합으로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며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매장



WRITE
편집실

등산 필수 애플리케이션

Smart

스마트하게

생활의 팁

정상까지 — 도착하기

산을 오르는 중간마다 보이는 안내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상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안내판을 한 손에 담았다.
똑똑하고 안전하게 등산하기 위한 필수 애플리케이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안드로이드/ios, 무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 산행정보'앱. 전국 국립공원 코스를 검색할 수 있다. 무료 지도 다운로드, 등산 내비게이션, 트래킹 기능, 날씨정보 기능은 물론 조난신고까지 할 수 있어 등산 시 유용하다. 또 GPS를 활용해서 탐방로 경사도도 미리 체크할 수 있고 야영지나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탐방지원센터 위치 안내와 탐방객 안내 수칙도 제공한다. 산행코스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어 등산 초보자에게는 든든한 도우미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램블러

(안드로이드/ios, 무료)



지도 위에 나의 산행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램블러'앱. 주변 지도 안내를 통해 경로 기록을 할 수 있다. 램블러 앱은 기록을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이동한 거리, 기간, 칼로리, 속도, 높이 등을 보여준다. 업로드된 기록은 시간 순서에 따라 여정과 설명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무료 오프라인 지도 다운로드와 네이버 지도로 산행 시 배터리 및 데이터 통신료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나비 트랭글

(안드로이드/ios, 무료)



테마코스로 새로운 산행 경험을 하고 싶다면 '아이나비 트랭글'앱을 추천한다. 지하철 타고 떠나는 지하철역 주변 산행코스, 초급부터 상급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중주코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명품 돌레길 코스, 트랭글 회원들이 즐겨 찾는 코스 등 취향에 맞는 코스를 골라 체험 가능하다. GPS를 기반으로 하여 운동 기록을 분석하기에 처음 가는 코스의 예상 시간도 제공한다. 또한 음성검색 기능이 있어 등산 장갑을 낀 사람들도 쉽게 앱 서비스를 누를 수 있다.

트랭글 GPS

(안드로이드/ios, 무료)



'트랭글 GPS'앱은 만보기 기능이 있어 걸음 수 배지 획득, 만보기 랭킹 신설 및 참가, 걸음 수 통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걸음 수를 통해 이동한 거리와 소모 열량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회원들과의 가상 경쟁을 통해 운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1,000만 개의 GPS 트랙 따라가기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최초로 전국 등산로 음성 내비게이션으로 산악인들의 애용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여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오영주(부산 진구)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첫 토론회 개최 소식 잘 읽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제시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 실시해 일반 국민의 실질적인 인지도와 체감도를 확인하고 설문결과를 국민생각함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하니 소중한 한사람, 한사람 의견이 담긴 국민모니터단의 무궁한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정숙(서울시 관악구)

2018년 겨울호에선 이동신문고팀과 그 팀원들의 역할과 다짐 등을 만나보았다면, 이번 2019년 여름호에선 '권익르포'를 통해 단계별로 심층분석한 이동신문고의 활약상과 평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현장소통창구로서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이동신문고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유정민(전남 순천시)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위에서는 잘 모르는 정말 해결해야할 세세한 고충에 대해 직접 와서 상담하고 차근차근 해결해주니 매우 고맙네요.

양서희(전북 장수군)

이번호 <권익빅데이터> 서비스 Q&A가 속시원 했습니다. 저도 마침 궁금했던 내용이 속 시원히 나와 있어서 기뻐요. 딸아이가 개명했는데 생활기록부 발급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어 감사해요. 이제 손쉽게 서류 뚫 것 같아요.

강병국(서울시 강동구)

국민신문고에 의견이나 제안을 많이 올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에 팝업이나 알림창고너 등을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 홍보도 재미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좋은 만큼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한 ○○○○○○○○○를 운영 중이다.

(힌트 : 권익르포 22p)

지난호 정답	이동신문고	
정답자	장하은(경기도 안산시) 이종민(서울시 서초구) 차윤(전남 여주시)	문성숙(서울시 강동구) 이주연(서울시 도봉구)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호·보상제도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

- 보상금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 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한 자만 해당
- 포상금 :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110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

상담 및 신고

- | 상담 |
 - 1398 또는 국민콜 110
- | 신고 |
 - 인터넷 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